

# 8월 수출 9.9% ↓ ...코로나 19에 반년째 부진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수출 부진이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모두 마이너스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15개 주력 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이 부진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두 달 연속 한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점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조업일수를 배제한 하루 평균 수출액이 회복세를 보이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 ◇“코로나19 재확산·미중 무역분쟁 영향 상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8월 수출이 396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9%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은 355억4000만 달러로 16.3% 줄었다. 무역수지는 41억2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우리 수출은 2월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 실적을 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지난 3월(-1.7%)부터 4월(-25.6%), 5월(-23.8%), 6월(-10.8%), 7월(-7.1%) 모두 부진했다.

그나마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한 자릿수 감소율을 유지한 점은 의미가 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18억3000만 달러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8억 달러대에 진입했다. 지난달 조업일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일 적었다. 하루 평균 수출 감소율은 3.8%로 플러스 실적을 낸 지난 1월을 제외하면 올해 최저치다.

## 두 달 연속 한 자릿수 감소 ‘긍정적’...무역수지 흑자

### ‘조업일수’ 제외 하루 평균 수출액 18억 달러 진입

### 주요 15대 품목 중 11개 부진...반도체·바이오 ‘선방’

### 미·중·EU 3대시장 동반하락...하루평균은 플러스

전 세계 주요국의 수출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는 선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10대 수출국의 상반기 수출 실적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율로 따지면 홍콩(-4.0%)이 가장 선방했고 중국(-6.2%), 네덜란드(-10.7%), 한국(-11.3%), 일본(-14.0%), 독일(-15.5%), 미국(-16.5%), 이탈리아(-17.3%), 영국(-19.6%), 프랑스(-23.3%) 순으로 집계됐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과 중계무역 비중이 높은 홍콩,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한국의 상반기 수출 감소율은 10대국 가운데 네 번째로 낮다. 같은 기간 교역 순위도 8년 만에 한 계단 상승하면서 8위를 기록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무역분쟁 등 위기 요소가 상존해 있고 우리 수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금융, 마케팅, 물류, 인력 이동 등 기업 수출 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올해 들어서만 5번에 걸쳐 발표한 수출

활력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중심의 경제·무역구조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 역량을 높이고 비대면 수출 기업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비대면 수출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수출 급락 막는 반도체...미·중·EU 부진 지속

품목별로 보면 주요 15대 품목 가운데 반도체, 가전, 바이오헬스, 컴퓨터 등 4개 품목이 플러스 실적을 냈다. 특히, 반도체는 올해 누적 실적 기준 플러스로 전환했다.

나머지 11개 품목은 전년 대비 실적은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로 보면 2차전지, 철강, 섬유, 석유화학, 일반기계, 차부품,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등 8개 품목에서 개선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수출액은 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이 안정되

기 시작한 중국·베트남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국으로의 부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컴퓨터 수출액은 106.6% 늘어난 13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터테인먼트·게임 등 비대면 산업에서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지속되면서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가전 수출액은 14.9% 증가한 6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대형 쇼핑 행사가 개최되면서 관련 제품 판매도 호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10억7000만 달러로 58.8% 증가했다. 국내 제약사가 신규 출시한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시장 판매와 의약품 위탁생산(CMO)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약품 수출도 꾸준히 늘어나는 중이다.

K-방역 신뢰도에 기반한 국내 진단기기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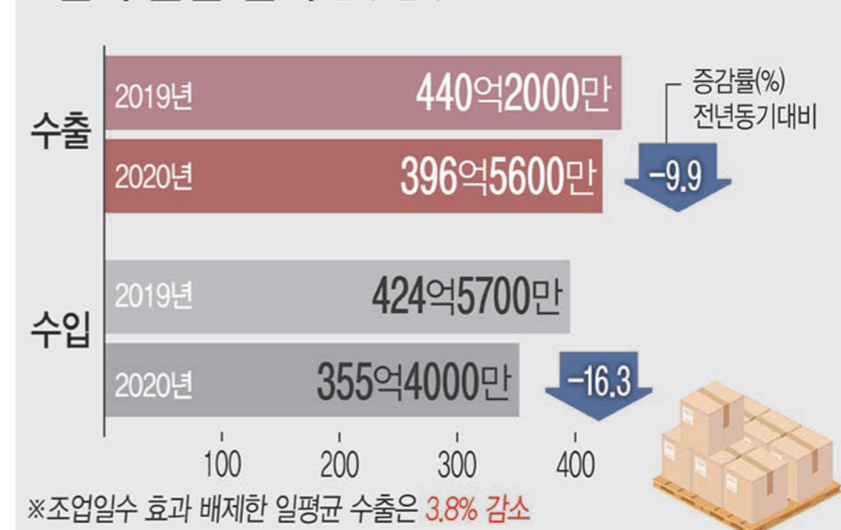
반대로 일반기계 수출액은 17.1% 감소한 33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자동차와 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25억9000만 달러, 12억9000만 달러로 12.8%, 27.0% 줄었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액도 각각 44.0%, 21.4% 쪼그라든 20억 달러, 27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외에 무선통신(-31.7%, 8억4000만 달러), 철강(-19.7%, 20억

## 8월 수출입 실적 단위: 달러



※조업일수 효과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3.8% 감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4000만 달러), 선박(-31.5%, 12억4000만 달러), 섬유(-16.9%, 8억 달러), 디스플레이(-22.8%, 15억7000만 달러) 수출도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중국(-3.0%, 109억4000만 달러), 미국(-0.4%, 56억 달러), 유럽연합(-2.5%, 38억5000만 달러)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한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기준으로 보면 중국(3.6%), 미국(6.4%), 유럽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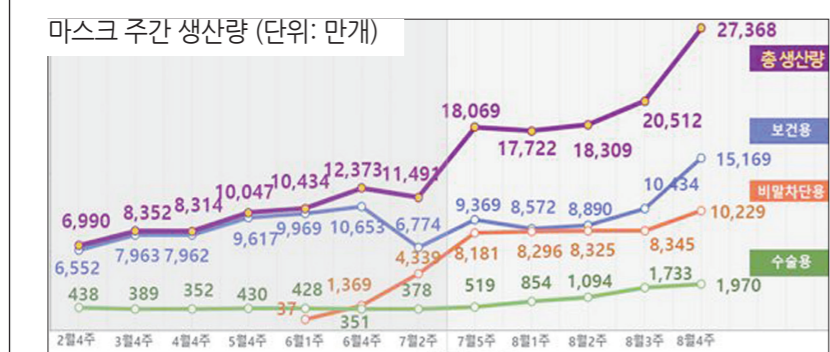
(4.1%) 등 3개 시장 모두 23개월 만에 플러스 실적을 냈다.

또한 아세안(-17.8%, 70억3000만 달러), 일본(-20.7%, 17억8000만 달러), 중동(-20.5%, 10억8000만 달러), 인도(-33.1%, 8억6000만 달러), CIS(-24.4%, 7억3000만 달러), 중남미(-30.2%, 14억1000만 달러)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도 대부분 부진했다.

신봉우기자

## 코로나 재확산에 차단력 좋은 'KF마스크' 45% 늘어

### 총 의약품 마스크 2억7368만장 생산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지난 주(8월 4주)에 의약품 마스크 중 미세입자 차단력이 가장 뛰어난 보건용 마스크(KF)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주 생산된 보건용 마스크는 1억5169만개다. 전주(8월 3주 1억434만개)에 비해 45%(4735만

개)나 늘었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월~금)의 경우 하루 평균 2541만개가 생산됐다. 지난달 26일에는 2722만개를 생산하며 하루 최대 생산량을 갱신했다.

KF마스크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보다 호흡하기 편하지 않아 성장이 주춤하다가 다시 차단 성

능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타며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미세입자 차단력은 KF94, KF80, KF-AD·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다. 호흡은 KF-AD·수술용, KF80, KF94 순으로 숨 쉬기 편하다. 지난 주 의약품 마스크 총 생산량 역시 2억7368만개로, 주간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다. 이 중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1억229만개, 수술용 마스크 1970만개로 집계됐다. 전주에 비해 각 237만개, 1884만개 늘었다.

마스크 가격은 온·오프라인 모두 하락 안정세를 유지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KF94)는 1200원대로 진입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600원대 진입한 이후 가격이 계속 내려가 온라인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더 낮아졌다.

김민정기자

## '코로나위기' 여객기 좌석 뜯고 화물 싣는다

### 개조된 여객기 화물 수송 시 10.8t 추가 적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의 여객기에 화물수송 적재량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여객 수요 회복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에서 유류 여객기를 화물 수송 용도로 수리 개조를 신청한 것에 대해 개조작업에 대한 적합성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유류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활용하기 위한 좌석 제거와 객실 바닥을 변경하는

수리개조 사항이다.

국토부는 제작사(보잉사)의 기술 검토를 거쳐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도 마쳤다. 또한 수리개조 적합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사한 후 승인했다.

브리티시항공, 에어캐나다, 에미레이트항공 등 외국 항공사에서도 제작사 기술검토를 거쳐 여객기를 개조해 화물을 수송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국토부는 이번 승인 조치로 수리 개조된 여객기 화물 수송 시 약 10.8t의 추가적인 화물 적재가 가능해 항공사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일부 저비용항공사(LCC)에서 여객기 객실 내 화물을 수송하는 계획도 안전운항 기준 지침에 근거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 식품·외식업계, 온라인·배달·구독 강화

### 코로나 19 여파 언택트 시대 생존방법으로 다양한 시도중

식품·외식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자 생존 방법으로 온라인 신제품 출시, 배달 서비스 강화와 구독 경제를 선택한 모습이다.

집콕족이 증가하자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선보이고 배달 앱과의 협업을 통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매출 창출을 위해 구독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34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음식료품 및 농수축산품 분야

는 25% 가까이 증가했다. 그동안 공산품 위주로 온라인 쇼핑이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배송 기술의 발달로 신선식품, 냉동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주문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품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온라인 전용 브랜드 론칭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은 2017년 온라인 전용 브랜드 '집오로ON'을 론칭한 이후 올해 '팔도별미' 국탕류 신제품 3종을 출시

하는 등 온라인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의 온라인 사업 매출은 지난 2017년 568억원에서 지난해 893억원 규모로 연평균 약 25.3%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SPC삼립은 쿠팡과 협업해 홈 델리 브랜드 '얇'을 론칭했으며 신세계푸드는 베이카에누보를 선보이며 온라인 전용 냉동 디저트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배달앱 업체와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할인 프로모션 전개는 물론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정승호기자

## 노스페이스, 페트병 재활용 '에코 플리스 컬렉션' 출시

### 전년 비 3배 증가한 페트병 재활용

영원아웃도어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올 가을/겨울(F/W) 시즌을 맞아 무려 천 만개가 넘는 페트병(500ml 기준 약 1082만 개)을 재활용한 F/W '에코 플리스 컬렉션'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노스페이스는 지난해 F/W 시즌 처음 선보인 '에코 플리스 컬렉션'을 통해 이미 페트병 약 370만개를 재활용하고, 친환경 공정을 통해 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한 바 있다. 대표 제품인 '싱크 그린 플리스 재킷'은 '2019 소비자가 직접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시즌엔 리버시블 재킷, 롱코트, 블루중, 아노락, 베스트 등 50여개가 넘는 다양한 스타일로 출시했다. 페트병 리사이클링 소재 원단을 적용한 물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주력 제품들의 페트병 재활용 비율도 한층 높여 재킷 1벌당 최대 66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했다. 이를 통해 '에코 플리스 컬렉션' 1차 물량만으로도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약 1082만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했다.

대표 제품인 '세이브 디 어스 플리스 재킷'은 리사이클링 지퍼 테이



영원아웃도어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올 가을/겨울(F/W) 시즌을 맞아 무려 천 만개가 넘는 페트병(500ml 기준 약 1082만개)을 재활용한 F/W '에코 플리스 컬렉션'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프까지 적용하는 등 환경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더해졌다. 개인 취향에 맞게 기본 재킷형 디자인과 후드형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